

보살의 길

2013년 가을호 제 54호



8월26일 박재근원장님께서 용돈지급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창원 경찰특공대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특공대에서는 일년 전 즈음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봉사정신을 증진하고자 청렴 봉사 동아리(일명 경청회)를 만들어 특공대장님을 비롯한 약 25명의 회원이 십시일반 모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돕기도 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초등학교 교사인 친한 친구로부터 혜명양로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난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청소와 이발 등 어르신들께 작으나마 도움의 손길을 드렸다.

처음 이 일을 계획하면서는 과연 경찰특공대원들이 생판 모르는 노인 분들과 얼마나 어울리고 호응을 해 줄지 미지수였기에 불안감 반, 기대감 반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부대 훈련과 업무로 인해 방문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 와중에 지난 6월 처음 혜명양로원에 방문하면서 같이 방문한 특공대원들의 굶은일도 마다않는 적극적인 모습과 또 어르신들께 먼저 다가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살갑게 말동무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불안감은 기우였음을 느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특공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군대를 경험하고 또 경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들이다. 그래서 풍기는 외모와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있어 보이고 위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혜명양로원에서의 특공대원들은 내가 봐왔던 직원들이 아니었다. 이때까지 그들이 무술을 하고 레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들은 이날 내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표정과 몸짓을 보여줬다.

두꺼운 팔뚝으로 구석구석까지 대청소를 하고 능숙

한? 가위질로 이발도 하고 작은 성의를 모아 추석과 일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매일 같이 지내는 내가 봐도 좀 범상치 않은 검정옷을 입은 근육질의 직원들을 보고 할머니들이 겁을 먹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외로운 분들에게 그런 건 그리 문제되지 않으신가보다. 아니면 시력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암튼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어느 할머니가 말하셨다. 몇 년을 같이 있어도 이름도 잘 모르고 말도 잘 안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하여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그 분들은 우리의 방문을 좋아하셨고 자기 인생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셨다.

한 여직원이 6월에 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얼굴이 고우셨던 그 할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계셨고 표정이 그리 밝지 않으셨지만 우리 직원과 꽤 많은 대화를 하셨다. 그런데 9월에 방문했을 때 그 할머니는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다. 우울증도 심해지고 몸도 약해지시면서 자꾸 넘어지셔서 얼굴에 멍도 들고 눈빛도 완전 다른 분이 되어있었다. 뇌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고 3개월전 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던 그 직원이 다가가 인사를 드렸지만 알아보시지 못하시는 듯 무표정이셨다.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 직원이 산책을 나섰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간식을 드릴 때 갑자기 아무 말도 안하시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한다. "왜 이제 왔어?"

할머니는 기다리셨다. 그 직원을.. 우리의 방문을..

6월에 양로원을 나서면서 다음달에 오겠다고 했지만 부대 사정상 일정은 자꾸 연기되었고 이렇게 3개월만에 왔던 것인데 할머니는 기다리셨고 서운하셨나보다. 그 할머니는 다시 그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기분 좋게 가지고 간 간식을 다 드셨다 한다. 양로원에 들어오시는 할머니의 표정은 약간의 웃음기까지 보였다.

그 여직원에게 몇 자 소감문을 적어보라고 했다.

“혜명양로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할머니들이 소녀처럼 웃으시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 마음도 덩달아 좋아졌다. 봉사라는 게 꼭 몸을 쓰고 하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느껴진다. 정말 이런 인연의 끈으로 나에게서 여러 명의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오는 것 같아 감사하는 하루다”

반갑게도 동아리 회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비번도 마다않고 활동을 하는 직원들도 있다. 아무쪼록 경찰특공대와 혜명양로원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겉정 옷을 입은 특공대원의 마음속에 있는 천사의 마음을 더욱 일깨우고 드러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활동은 양로원을 위한 활동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문권화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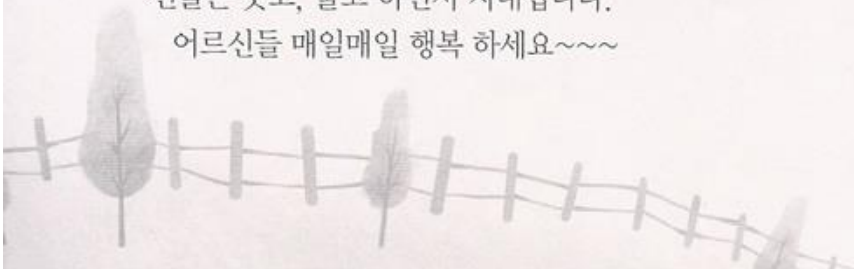
매일 매일 행복하세요

송*옥어르신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얼굴빛이 노란, 마른체형의 미인이셨습니다.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 기력이 너무 쇠하시어 요양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말기암이라 복수가 많이 찼다고 하면서 근처 병원에서 복수를 빼야해서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 2주만에 어르신을 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오신 어르신을 뵈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투병하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 한쪽이 짠 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도 있으셔서 최근에 입사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서 “양로원에서 왔어요. 어르신” 하고 말씀드리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해드린것도 없는데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살며시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다” 이 말씀에 눈물이 와락 나왔습니다. 양로원에 계신동안 면회오는 사람 없이 지내셨던 어르신. 아프시고나서 얼마나 더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어르신들은 나이만큼이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홀로 지내시다가 양로원에 입소를 하십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높아져서 입소하시는 분들의 연령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6월에 입소하신 아흔 넷이신 이*옥 어르신은 말투는 투박하지만 귀여운데 가 있으시고 백세가 넘으신 강*옥 어르신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신 참 다정한 분이십니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뵈 때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할머니도 이런 곳에서 계셨다가 돌아가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정이 있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부대기며 사는 것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은 웃고, 울고 하면서 지내십니다.

어르신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혜명한마당



| 자원봉사자 교육 |

8월29일 남부노인보호소 이현주 강사의 "시설과 재가어르신의 인권교육"이 있었습니다. 20여명이 참석한 교육은 우리 실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친 인권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는 더욱 인권을 중시하며 일해야겠다고 새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알송달송 공연 |

매달 셋째주 토요일엔 알송달송 공연팀이 적절한 토요일 오전을 즐겁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연동화, 체조, 마술,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시는 알송달송공연팀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 용돈지급 |

8월26일 박재근원장님 생신을 맞아 입소어르신들에게 대중공양과 용돈을 지급해주셨습니다.



| 남부교도소 봉사 |

8월30일 남부교도소 교정위원님들이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와 간식 등을 준비해 주셨고 색칠 자원봉사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 대형마트 나들이 |

9월4일 어르신들과 마트에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빵, 사랑, 커피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간식도 나눠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나들이 |

9월17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초청을 해주어 어르신 10명이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역사 변천사를 재미있게 들으며 어르신들의 예전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보건소 무료 틀니 지원 사업 |

2013년 노인복지(틀니)사업 대상자로 추천되신 3명의 어르신 중 1명은 치료와 틀니가 완성되었고 2명은 진행 중 이십니다.



| 물리치료 운동 프로그램(오타고) |

균형감각과 다리근력이 부족한 최*현 어르신에게 손 잡고/안 잡고 무릎 구부리기, 측면 엉덩이 강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 하시기에 시간을 짧게 잡고 접근을 해서 거부감 없이 잘 따라하셨다.



| 송편 빚기 |

9월17일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빚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의 송편을 한껏 발휘해서 예쁜 송편을 빚으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께서 방문하여 송편 빚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직원현황

- ▶ 총 17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 물리치료사 1명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현재 입소인원 (9월 30일 기준)

- ▶ 총 54명 (할아버지 : 21명 할머니 : 33명)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8월30일 남부교도소 교정위원장님 방문



9월 6일 제 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채명석 케어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2012년 7월 1일 ~ 9월 30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한상애, 이양숙, 김용래(밀그림색칠화사회), 문덕녀, 박소선, 최혜영(대림마용실),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조규용, 김용기, 유만수(한방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오정자, 한미옥, 김동진, 조해숙, 김명순(아코디언), 박미란(말벗), 소미숙, 김미정, 이정순, 이유정, 박계남, 이연수(민들레모임), 이강택, 임효정, 한미옥, 이승희, 이정애, 진명자, 광정숙, 이선녀, 이금재(알송달송구연동화), 신숙례, 고준자, 이원자, 이득남, 이정조, 김명숙, 임태경, 김오복, 김철호, 정연순, 한승우(자비나눔예술봉사단), 문용희, 손인평, 김영중, 박상근, 진선호, 손명숙, 황창선, 김귀남, 봉순이, 최승희, 이현희(메아리에예술공연단), 성낙권, 박종보, 손선희, 백영일, 조용대, 박경수, 우명희(심운회), 김소연(행복날개수련원), 남부교도소 재소자, 박노원, 조국현, 이승호, 황두연, 김경자, 이정희, 곽윤희, 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안양교도소, skt서비스, gs리테일, 경찰특공대 경청회, 독산초등학교, 마경화, 이정순, 김채하, 강명옥, 박수윤, 최효정, 최유정, 이희경, 장희숙(이침), 강민경, 전서현, 도학준, 신현수, 신유수, 도학범, 이정순, 장화순(청소년봉사단 나우누리), 마하보리사, 이정수, 임숙자, 석동화, 이형기, 이민자, 김순영(행복열차자원봉사단), 김은용, 이여철, 유재동, 김철수, 고상임, 배병용(서울메트로), 김희선, 김임예, 유은주, 김순희, 문권화, 최연옥(숲지기강지기), 문백초 유상호 선생님 외 6학년 학생들

물품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박재근원장님, 금천푸드뱅크, 벽산2단지 입주자, 입소인 가족, 입소인 지인, 구충수 임옥수부부, 독지가, 광장약국, 문백초6학년, 은정엄마(정경숙), 원종혁, 마하보리사, 인천보살님, 찬불가, 남부교도소, 백련사, 금천구의회, 셋별어린이집, 나우누리, 민들레모임, 경찰특공대 경청회, 이종민, 보명사, 금천구청장, 김선재, 정해창, 서서울생활과학고, 김현수, 혜명보육원, 알송달송공연팀, 고물상, 민들레모임, 이침봉사팀, 색칠봉사팀 화사회, 명동칼국수 가산디지털점(한경희) 서대문구민주평화통일협의회, 박노원, 김봉자, 행복열차자원봉사단

금품 후원자

윤재순90,000	박성수90,000	최형기30,000	권기상150,000	구봉순20,000	이정호10,000
정치영1,000,000	강윤희100,000	박혜정90,000	김연숙80,000	한진택300,000	양서연20,000
서춘영2,577,131	최영식50,000	양보금30,000	안호주400,000	마희전20,000	박세진30,000
이순자60,000	구수미300,000	박두영300,000	구충수300,000	임옥수300,000	이명희60,000
유복진10,000	황준순15,000	이성현30,000	황재욱15,000	조방희5,000	박성자5,000
한미옥10,000	김보미10,000	이종민15,000	김애순30,000	홍순의30,000	박분여30,000
황순현30,000	하미숙30,000	한고운9,000	박혜순30,000	송은지15,000	송준우15,000
이창열30,000	추영상30,000	김흥수30,000	송진희30,000	이해진30,000	윤시균12,000
(주)해다미826,937	김평식30,000	김준하10,000	김보미10,000	이의인박경애30,000	
송자옥1,191,458	(주)한국거래소600,000	서울남부교도소300,000			

